

회원사 가족이 되었습니다

본 지면은 한국광학기기협회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를 소개하는 면이다.
협회의 새로운 가족이 된 (주)엔투에이를 간략하게 소개한다. <편집자 주>

(주)N2A

from Nano to Angstrom

(주)엔투에이(대표 · 김풍전, www.n2a.co.kr)는 2007년 11월에 설립되어 광학부품용 정밀금형의 가공 및 제작에 주력해 왔다. 이 회사는 초정밀 가공기술을 기반으로 비대칭 렌즈 어레이 가공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Laser를 이용한 렌즈 코어 부식공정을 최초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첨단제품의 개발 및 연구활동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2008년 1월에는 '참기술 연구소'를 설립하였고, 2010년에는 결상 및 조명광학 설계자 다수를 영입하여 광학설계에서 초정밀 가공기술을 이용한 광학모듈 독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최근에는 LED/Laser Pico-Projector용 광엔진을 개발하여 양산 준비 중이며, Touch Screen Camera Module, Laser관련 방위산업분야 등에 주력하고 있다. 특히 결상과 조명이 결합된 복합광학부품에 대한 설계 및 금형제작에서는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.

김풍전 대표는 “과거 항공, 방산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초정밀 가공기술이 정보화 시대의 급격한 전개와 더불어 현재에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정보기기에 사용되고 있다”며 “엔투에이는 초정밀 가공기술에 광학설계 및 제조기술까지 더해져 광학분야에서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다”고 말했다.

이 회사는 실제로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에 광학부품생산라인을 오픈하면서 광학설계에서 금형제작, 모듈생산이 가능한 Total Solution 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.

(주)N2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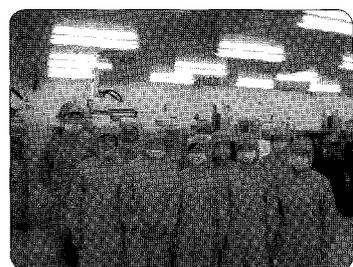
- 대표 : 김풍전
- 전화 : (031)355-0626~8
- 팩스 : (031)355-0609
- 주소 : (본사/연구소) -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500-73 (안양사업장) -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-22
- 홈페이지 : www.n2a.co.kr



▶ 김풍전 대표



▶ 본사 및 연구소 임직원들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.



▶ 안양의 광학부품생산라인의 직원들 모습